

## 지금은 금지된 모든 것

둥둥, 뽀뽀, 나뽀, 무. 다시, 무나뽀, 뽀뽀.

아파트 화단에 꽃힌 뽀뽀를 보며 중얼거렸다. 뽀뽀나무, 뽀뽀꽃이 위아래로 적혀 있었다. 며칠 전 내린 눈이 그대로였다. 드문드문 떨어진 붉은 뽀뽀꽃이 안에 진노랑의 수술이 뽀뽀 빠져나와 있었다. 이쪽에 선 나와 눈맞춤을 하는 것 같았다. 뽀뽀 놓인 길을 따라 고양이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멀쩡멀쩡 찍힌 발자국에는 서둘러 걸어간 흔적이 역력했다. 고양이는 뽀뽀로 눈 덮인 화단을 걸으며 살짝 후회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람이 뽀뽀꽃을 건드릴 때마다 목뒤가 서늘했다. 뽀뽀 점퍼에 붙은 후드를 끌어 올려 뒷목을 가렸는데도 한기가 느껴졌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둘러 거리로 나섰다.

이때만 해도 알지 못했다. 지금 나는 누군가의 손에 목이 잡힌 채 밀면 밀리는 대로 걷는다. 길은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는 범인과 나 둘뿐이다. 약 500미터 앞에 내가 사는 아파트가 보인다. 그 안에서 내 가족이 자고 있을 것이다. 아파트를 보며 똑바로 걸어만 가면 된다. 내 발은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간다. 정확히는 끌려가고 있다.

범인은 뒤에서 왼손으로 내 목을 잡았다. 목에 닿는 감촉이 뽀뽀하지만은 않은 걸 보면 험한 일을 하는 손은 아니다. 아, 하고 소리를 내 보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범인이 나의 턱 아래쪽을 세게 움켜쥔 탓에 입이 벌려지지 않는다. 등 뒤로 딱딱한 물건이 닿는다. 칼인지 막대기인지는 알 수 없다. 혹은 망치나 멧끼 스패너 따위의 둔기류인지도 모른다. 찢려 죽거나 맞아 죽거나 둘 중 하나겠거니 짐작만 할 뿐이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보통의 하루가 예상치 못한 끝을 향해 흘러간다.

내가 집을 나선 시각은 오후 2시였다. 아파트 화단 앞에 잠시 멈춰 서서 뽀뽀꽃을 바라보고, 그 앞을 지나갔을 고양이를 상상했다. 몸 안으로 스며드는 한기가 걸음을 재촉했다. 거리에는 온갖 글자들이 넘쳐났다. 매일 보는 글자들을 거꾸로 읽고 뒤집어 읽었다. 글자들은 새롭게 달라졌다. 뽀뽀집이 뽀뽀집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일하는 뽀뽀집은 유니폼이 따로 없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긴 머리를 하나로 묶었다. 가장 먼저 매장을 정리했다. 오전에 팔고 남은 뽀뽀를 낱개로 포장해 다시 진열하는 일이었다. 봉투를 벌린다, 뽀뽀를 넣는다, 봉투를 닫는다고 연결되는 단순한 일이었다. 뽀뽀를 비닐에 담으며 뽀뽀 뽀뽀를 거꾸로 읽었다. 뽀뽀판, 림크슈, 트르타그에, 뽀뽀지시소, 뽀뽀니데, 뽀뽀밀호, 트게바……. 묘하게 말이 되기도, 어처구니 없기도 했다. 슬쩍 웃음이 나왔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입으로만 씩씩 웃었다. 오랫동안 혼자만 간직한 작은 습관이었다.

뽀뽀 포장을 마친 뒤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뽀뽀꽃이 피었다고 말했다. 동료는 한겨울에 뽀뽀꽃이 피냐며 ‘미친 꽃, 미친 지구’라고 씩씩하게 웃었다. 지구 열대화 때문에 뽀뽀꽃들이 계절을 헷갈렸나보다는 말도 덧붙였다. 동료는 겨울에 핀 뽀뽀꽃을 정신 나간 뽀뽀꽃이라고 여기는 눈치였다. 나도 씩씩하게 웃었다. 뽀뽀는 겨울에 피는 뽀뽀꽃이었다. 계절에 맞게 피어났음에도 하필 겨울인 탓에 잘못 피었다고 오해를 받기 일쑤였다. 거기에 괜히 지구까지 싸잡아서 욕먹은 덕에 나는 괜한 말을 했나 싶었다. 지구가 스스로 제 몸을 지글지글 끓인 게 아닌데도 툭하면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더위도 지구 탓, 추위도 지구 탓, 뽀뽀꽃이 빨리 피도 늦게 피도 모두 지구 탓이었다. 어쨌든 뽀뽀꽃도 지구도 미치도록 억울할 것 같았다. 동료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정정하지는 않았다. 해명하는 건 내 몫이 아니었다.

일이 끝난 뒤에는 회식에 참여했다. 뜨끈한 어묵탕에 소주나 한잔하자는 사장의 말 때문

이었다. 다른 날보다 재고가 많이 남아서 그런지 사장은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빵 좀 챙겨가라는 말에 나를 포함한 빵집 사람들은 두세 봉지씩 가방에 넣었다. 사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거푸 술잔을 비웠다. 그런 다음 언제나처럼 우리가 챙긴 빵값을 셈하며 말했다. 월급은 많이 못 줘도 빵이라도 챙겨주는 게 자신이 생각하는 복지라고. 빵집 사람 중 경력이 가장 오래된 빵공장장이 서둘러 술잔을 채우고 사장과 건배했다. 다른 직원은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섰고, 아르바이트 동료는 괜히 어묵탕이 끓고 있는 가스버너의 불을 줄였다. 나는 앞접시에 담긴 어묵탕을 바라봤다. 어묵이 지긋 모양으로 놓여 있었다.

2차로는 노래방에 갔다. 빵집 사람들이 순서대로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탬버린을 들고 손뼉을 치며 구경했다. 그러다가 한 곡 하라는 등쌀에 밀려 내가 덕질하는 가수의 노래 한 곡을 예약했다. 옛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었다. 나이가 다양한 빵집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을 것이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사장은 갑자기 신이 나서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왕년에 이 노래로 여자들 좀 꼬셨다며 나불거렸다. 대충 1절까지는 참을만 했다. 그러나 2절이 시작되기도 사장은 마이크를 양보하지 않았다. 나는 어설픈 배가 아프다는 연기를 하면서 화장실로 도망갔다. 변기에 앉아 서둘러 휴대폰 뮤직 앱을 켜 내 가수의 노래를 들었다. 그제야 귀가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얼마 뒤 동료가 화장실로 와서 나를 찾았다. 노래방 시간이 끝나 3차를 간다고 했다. 나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무리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은 노가리집으로 몰려갔다. 나는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집으로 향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사장이 망쳐버린 내 가수의 노래가 귀를 가득 채웠다. 새벽 1시 40분이었다.

지금 나는 일련의 행동들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느낀다.

내 가수는 원곡보다 조금 더 발랄하게 리메이크했다. 오늘따라 더 붉은 그대 입술, 노란 가로등 아래 눈이 부셔, 낮에 본 동백꽃이 떠오른다. 누구에게 끌려가면서 떠올리기에 적당한 장면은 아니다. 그렇다고 끌려가면서 듣기에 적당한 노래도 아니다. 마치 토네이도에 휩쓸려 날아가는 뿌리 뽑힌 나무가 된 기분이다.

범인은 나를 아파트 뒤편으로 민다. 나는 밀리는 대로 걸어간다. 아파트가 끝나는 지점에 슈퍼가 하나 있다. 슈퍼 뒤편으로 사람들이 사는 5층짜리 빌라가 두 채, 그 뒤는 공사판이다. 여러 개의 빌라가 들어올 예정으로 겨우 터를 파놓은 곳도 있고, 골조만 세워진 곳도 있다. 공사판까지 끌려가면 아마도 나는 찢려 죽거나 맞아 죽은 뒤 발견될 것이다. 옷을 입은 채로 발견되는 것만이 그나마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인가. 눈 덮인 화단 위 드문드문 떨어져 있던 붉은 동백 꽃송이를 떠올린다. 어쩌면 그것은 눈을 치켜뜬 채 죽은, 어떤 억울한 이의 눈썹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슈퍼가 보인다. 그 뒤로 빌라 두 개 동이 보인다. 불 켜진 집은 없다. 내 귓속만 시끄러운 지금, 여기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범인과 나 둘뿐이다.

\*

나에게 산다는 건 딱히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다. 죽음을 원하지는 않았다. 중학생이던 어느 날 자연사할 때까지만 그럭저럭 살자고 결심했다. 그때는, 물론 지금도 믿을 수 없지만 누군지도 모를 사람에게 끌려가는 일 따위는 상상해 본 적도 없다. 나는 죽을 때도 지극히 평범한 모습일 것 같았다. 살아가야 할 기나긴 시간이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었다. 적당히 살면서 자연사하는 날만을 기다렸다.

이런 결심은 덕질에도 영향을 끼쳤다. 즐거운 덕질을 위한 오만 가지 방법은 내 관심 목

룩에 없었다. 이를테면 앨범을 사고, 포토 카드를 모으고, 앨범깡을 하거나 팬미팅, 콘서트, 사전 녹화 및 공연장을 따라가는 것. 떠들썩하고 열렬한 덕질은 내것이 아니었다. 뭘 하지는 않아도 적당히 오랫동안 좋아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신곡을 발표하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는 정도의 관심이 좋았다. 누군가가 그게 무슨 덕질이냐며 비웃는다면 대충 웃음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딱 그만큼이 좋았다.

그랬던 내가, 눈앞에 보이는 슈퍼의 간판을 거꾸로 읽으며 어딘가로 끌려간다. 내 가수의 노래가 반복되는 속에서 못다 한 덕질을 후회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에도 퍼슈진소, 그러니까 소진슈퍼 쪽으로 세 발짝 더 나아간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느리게 느껴진다. 1분 또는 2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내가 태어나던 날의 장면을 본다. 간호사의 품에 안긴 자그마한 내가 온몸이 빨개지도록 운다.

나는 나뭇잎마저 바싹 말라버린 늦가을에 동네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무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학교생활도 특별한 건 없었다. 중간쯤 되는 성적에 비슷한 수준의 친구 두세 명과 붙어 다녔다. 수능 성적에 맞춰 대학에 들어갔고, 적당히 다니다가 졸업했다. 그 뒤에는 남들처럼 취업에 도전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학에서 배운 것, 전공을 선택한 이유 따위의 질문에 할 말이 없었다. 성적에 맞춰서 갔다고 대답한 적도 있다. 그 회사에서는 나를 뽑아주지 않았다. 나는 원하는 회사가 없었고, 나를 원하는 회사도 없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살았다. 그러다가 1년 전 어느 날, 집에서만 보내는 삶이 못 견디게 지루했다. 그날은 어쩌지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될까 하는 물음이 번뜩 머리를 스쳤다. 집 밖으로 나가 간판들을 거꾸로 읽으며 무작정 걸었다. 그때 ‘집빵’이라는 글자를 발견했다. 따로 이름도 없이 간판에 ‘빵집’ 두 글자만 적혀 있었다. 빵집과 집빵은 빵을 파는 집, 집에서 만든 빵과 같이 각각 의미를 만들 수 있었다. 앞으로 읽든 뒤로 읽든 둘 다 말이 되었다. 그게 좋았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문을 열고 빵집에 들어갔다. 사장이 멀뚱히 서서 쳐다봤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장은 별 고민 없이 바로 시작하자고 대답했다. 그날부터 아르바이트생이 되었다.

스위스, 기러기, 토마토처럼 앞뒤 글자가 똑같은 말은 매력이 없었다. 나는 글자를 뒤집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말들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에 깨달았다. 칠판 옆에 붙은 시간표를 수업 시간 내내 반복해서 읽었다. 시간표의 앞머리만 따서 읽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뒷글자만 따서 읽었다. 국어, 음악, 체육, 수학을 어악육학으로 읽고는 혼자 킁킁거렸다. 어국, 악음, 육체, 학수로 거꾸로 읽으면서 재미를 느꼈다. 특히 체육, 육체처럼 앞으로 읽든 뒤로 읽든 말이 되는 글자들을 만나면 더욱 신이 났다. 입안에서 별사탕이 툭툭 터지는 것처럼 짜릿한 맛이 느껴졌다.

재미난 놀이를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웠다. 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 학원 친구들 두세 명에게 놀이 방법을 알려 주었다. 당시에는 말 줄이기가 유행할 때여서 아이들은 종종 ‘생.선으로 문.상받았어.’가 무슨 말이에요? 하며 학원 강사들에게 퀴즈를 냈다. 강사들은 생일 선물과 문화 상품권을 쉽게 알아차렸다. 그럴 때 나는 ‘선.생으로 상.문받았어.’가 무슨 말이에요? 하며 친구들에게 퀴즈를 냈다. 나와 관계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꽤 히트를 쳤다. 프사, 펜볼, 트노 따위의 말들을 모조리 거꾸로 말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을 평생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겠다고 결심한 날이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다.

나는 몇 초 후면 죽을지도 모른다. 내 등에는 칼일지, 둔기일지, 그저 나무 막대기일지 모를 것이 닿아있다. 그것으로 범인이 내 머리를 박살 낼지도 모른다. 하필 이런 순간에 ‘국어’

의 얼굴이 떠오른다. 나를 벌레처럼 쏘아보던 그 무서운 표정을 잊어본 적이 없다. 우리반 담임이기도 했던 그녀는 단 한 마디로 내 삶의 재미를 빼앗아버린 사람이다. 미친 짓거리라는 말로, 글자 놀이를 즐기던 나와 친구들 모두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막 성적이 나오던 날이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이 지나 5교시 수업에 들어왔다. 큼지막한 종이를 펼쳐 들고 그 안에 쓰인 글자들을 노려봤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 오른 점수와 떨어진 점수가 기록된 반 전체 성적표였다. 그녀의 침묵은 공기 중에 떠돌던 장난기 어린 숨결을 단숨에 눌러 죽였다. 잠시 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했다. 성적이 떨어진 애한테는 ‘돌대가리’라고 했고,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른 애한테는 ‘무지성 짝신’이라고 했다. 성적을 그나마 유지한 애는 ‘머저리’였다. 성적이 많이 오른 한두 명은 호명이 없었다. 나는 머저리에 속했다. 그녀는 우리 반 성적이 전교에서 꼴찌라며 분노했다. 쪽팔려서 교무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거였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당사자는 우리였다. 그녀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그저 한 교시 내내 쏟아지는 난폭한 말들을 각자의 방법으로 비껴갈 뿐이었다. 아이들은 못 들은 척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생각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속으로 말대꾸하며 시간을 견뎠다. 나는 세 번째 유형이었다. 들려오는 말을 모두 거꾸로 바꿨다. 말머리에 ‘임담’을 붙여 보기도 했다. 임담 리저머, 임담 성지무, 임담 리가대돌……. 반복하다 보니 ‘임담’에서 묘한 리듬감이 느껴졌다. 임담, 임, 담, 임…… 담임, 머저리. 씨익.

웃어?

내가 웃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녀가 말했다. 반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내게 쏠렸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이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나는 조금 전까지 입안에서 굴리던 말을 더욱 빠른 속도로 외웠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가 앞에 와서 섰다.

웃겨?

순간 팔뚝질처럼 대답을 내뱉고 말았다.

임담 리저머, 임담 성지무, 임담 리가대돌.

실수였다.

다시 말해 봐.

아이들의 눈 깜빡이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했다. 잠시 뒤 폭탄처럼 웃음이 쏟아졌다. 아이들은 서로 ‘거꾸로, 거꾸로.’라며 비밀을 공유했다. 그녀도 비로소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아이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는지 책상을 탁탁 쳤다. 그녀가 손을 들어 내 머리를 퍽퍽 때렸다. 나는 숫자를 3까지 세다가 놓쳤다. 아이들의 웃음이 멎었다. 퍽퍽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중간중간 미쳤냐, 돌았냐, 대가리에 뭐가 든 거냐 따위의 말이 섞였다. 때리는 힘에 밀려 내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쉬는 시간 종이 울렸다. 나는 드디어 끝났다고 속으로 안도했다. 그러면서도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내 오랜 습관도, 헛소리가 튀어나온 것도, 무서운 시간을 견디려고 그랬다는 것도, 무엇도 해명할 수 없었다. 글자를 거꾸로 읽거나 말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그녀가 규정했기 때문에. 미친 짓거리를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그녀가 교실에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날부터 나만의 비밀 습관이 되었다. 아무에게도 거꾸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국어 교과서 표지를 ‘어국’으로 고쳐놓았다. 이후로도 몇 번인가 그때 일을 떠올리면 억울한 마음이 들곤 했다. 얼마 안 가 청소년 인권 조례가 시행되었다. 그녀가 폭력 교사로 몰려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들렸다. 나는 고소한 마음을 한껏 담아 딱 한 번 씨익 웃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걸까. 주변이 더욱 어두워진 것 같다. 두 번, 세 번……. 노래를 몇 번 들었는지 세어보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새벽 두 시에 가까운 시각이었으니 그보다 1, 2분 전후일 것이다. 범인이 나를 계속 끌고 간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주인공들은 범인과 맞서 싸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딘가에서 봤던 팔꿈치로 옆구리를 찌르고 범인에게서 벗어나는 장면을 떠올린다.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행위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영화 속 주인공은 실패해도 죽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저 이대로 계속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범인이 목을 놓아줄 때까지. 범인이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나올 때까지 그저 이대로.

수천 개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간다.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 살면서 보았던 수많은 간판과 메뉴판, 사이사이 교실에 앉아 있는 내가 있고, 부모님한테 혼나는 나도 있다. 이삿짐이 가득한 장면에서 나는 곰인형을 품에 안는다. 나이대가 다른 몇 개의 나로 나뉜다. 여덟 살, 열세 살, 열일곱 살, 스무살이다. 나는 울고 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의 쓰레기장에 앉아서 스무 살의 내가 서럽게도 운다.

평생 살아본 집을 세어보면 지금 사는 집이 다섯 번째다. 4, 5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대부분 집 자체가 문제였다. 전세 계약이 끝나거나 도시계획 지정 구역으로 설정되거나 하는. 그래서 이사라고 해봐야 옆 동네, 옆의 옆 동네 아니면 길 건너 동 이름만 다른 주소지로 이동하는 수준이었다. 세 번쯤 이사했을 때는 풀지도 않은 이삿짐 상자를 창고에 쌓아둔 채 살았다. 그 상자들은 그대로 네 번째 집으로 옮겨갔고, 지금 사는 다섯 번째 집으로 올 때는 버려졌다.

이사할 때 집을 챙기는 건 부모님 몫이었다. 포장이사를 부르기엔 돈이 아깝다며 직접 짐을 싸다. 엄마는 어딘가에서 신문지와 무가지를 잔뜩 가져와서는 깨질만한 살림살이를 하나 하나 포장했다. 나와 동생은 각자 아끼는 장난감이나 학용품을 챙겼다. 그나마도 동생은 책가방에 들어가는 것들만 구겨 넣고 나머지는 내버려두었다. 그래서 항상 동생의 짐은 한두 개 상자에 몽땅 쏟아부어진 채 다음 집으로 옮겨졌다. 나는 가장 먼저 곰인형을 책가방에 넣었다. 그러자 다른 것을 더 담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미미와 바비, 스티커북, 비즈 공예 세트, 스탬프 놀이 세트가 버려지는 건 참을 수 없었다. 매번 이사 때마다 책가방에 사소한 물건을 때려 넣고 곰인형을 품에 안았다.

엄마는 곰인형을 버리자고 말하곤 했다. 그럴수록 나는 곰인형을 더욱 꼭 끌어안았다. 엄마는 곰인형을 보면 화가 치민다고 했다. 그게 교회에서 온 물건이라는 게 이유였다. 우리 가족은 종교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꼬시지만 않았어도 나 역시 평생 교회에 갈 일은 없었을 것이었다.

부활절 달란트 시장이 열리는 날이었다. 교회에 가면 예쁜 달걀을 받을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호했다. 나는 예쁜 달걀 두 개를 주머니에 넣고 달란트 시장을 구경했다. 그때 곰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곰인형은 원형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양털같이 곱슬곱슬한 흰 털, 목에 두른 노란색 리본과 가슴에 달린 하트 모양의 붉은 펜던트가 사랑스러웠다. 초록색 천이 덧대어진 손과 발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다. 곰인형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품에 안으면 한 품에 착 안길 것만 같았다. 곰인형 앞 팻말에 큰 글씨로 ‘달란트 80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달란트라는 교회 돈이 내게는 없었다. 조금 전에 받은 예쁜 달걀을 양손에 하나씩 쥐고 곰인형 앞을 서성였다. 교회니까 달란트와 바꿔줄 착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사람들은 곰인형에게도, 달걀을 권 나에게도 관심이 없었다. 곰인형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도 그 앞에 마냥 서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달란트

시장에서 캐서 역할을 했던 교회 사람이 다가왔다. 부모님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달란트 80장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확신했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천사가 우리집에 나쁜 짓을 할 리 없었다. 얼른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마침내 천사가 내 품에 곰인형을 안겨주었다.

그다음 날부터였다. 하루에 꼭 한 번씩 교회에서 전화가 왔다. 대부분 엄마가 전화를 받았다. 교회에 다니세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보세요. 엄마는 대꾸도 없이 끊었다. 전화는 계속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미친 사람들이 매일 전화를 해대는 통에 머리가 아파 미치겠다고 펄펄 뛰었다. 그때야 모든 사실을 말했다. 천사들은 미친 게 아니라고. 그 천사들이 나에게 곰인형을 선물해 주었다고 말이다. 엄마는 그날로 교회에 가서 곰인형값을 물어 주었다. 그 뒤로 전화가 걸려 오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곰인형을 볼 때마다 꼭 한마디씩 했다. 양털을 뒤집어쓴 곰이냐며, 노란 리본으로 목 조르는 거냐며, 손바닥과 발바닥에 붙은 초록색 천은 공장에서 만들 때 불량인 거라며 비아냥거렸다. 나는 곰인형의 귀를 손바닥으로 가렸다. 곰인형이 스스로 노란 리본을 매고, 초록색 천을 찾아 붙인 것이 아니었다. 곰인형이 그런 모질고 험한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다.

날이 갈수록 곰인형이 더 좋아졌다. 독특한 생김새도 그렇지만 한 품에 착 들어오는 작은 크기도 좋았다. 무엇보다 곰이란 글자를 뒤집으면 문이기도 했으니까 똑바로든 거꾸로든 말이 되는 게 좋았다. TV를 볼 때면 쿠션이 되었고, 숙제할 때는 책상 위에 얹혀 두었다. 침대에서는 나의 잠친구였다. 내가 집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에 곰인형이 있었다. 그렇게 나의 이삿짐 1순위 목록은 곰인형이 되었다.

이제 곧 공사판이다. 전봇대 앞에 쓰레기봉투가 겹겹이 쌓여 있다. 차가운 바람에 무언가 썩은 냄새가 실려 온다. 범인이 갑자기 내 목을 권 윈손을 마구 흔든다. 목 안쪽이 퍽퍽 울린다. 노랫말 사이사이 노래가 아닌 다른 것이 들린다. 웅얼웅얼 도통 알아들을 수 없다. 걸어오는 동안 무언가 말을 했을까. 대답이 없어서 화를 내는 걸까. 범인이 걸음을 서두른다. 나는 순간 발이 꼬여 휘청한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다. 범인이 목을 움켜쥐고 있어 넘어질 수가 없다. 나는 빠르게 걸음을 옮긴다. 세상을 둘로 나눈 어둠의 장막 안으로 범인과 함께 들어간다. 여기부터는 가로등도 하나 없는 공사 구역이다. 여기, 이 동네, 처음부터 좋지 않았다. 이사 오던 첫날부터. 좋지 않았다.

딱 한 번 이사할 때 곰인형을 챙기지 못한 적이 있었다. 바로 여기, 다섯 번째 집으로 올 때였다. 전세를 전전하던 부모님이 자신들 명의로 산 첫 번째 집이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리모델링하는 동안 부모님은 들떠있었다. 옆 동네, 옆의 옆 동네가 아닌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건 우리 가족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엄마는 큰맘 먹고 포장이사를 불렀다. 이사는 평일로 정해졌다. 가장 가까운 손 없는 날이었다. 나와 동생은 살던 집에서 등교했다가 새집으로 하교할 예정이었다. 포장이사는 우리가 직접 짐을 쌀 필요가 없고, 인부들이 모든 짐을 싸서 그대로 새집에 가져다주는 이사라고 엄마가 말했다. 그 말을 믿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당연히 곰인형은 새집의 내 방, 내 침대 위 또는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것이었다. 학교가 끝난 뒤 새집에 도착해서 곰인형을 찾았다. 어디에도 없었다. 새집은 새것을 의미했다. 부모님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낡은 짐들을 아주 많이 버리고 왔다. 옷장, 소파, 식탁은 물론 냉장고와 세탁기까지도.

내 방에는 익숙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 이불, 책상, 의자 모두 새것이였다. 손때 묻은 물건이라고 해봐야 옷가지와 책이 담긴 상자 두 개가 전부였다. 상자에 박힌 포장이사 업체 이름마저도 낯설었다. 엄마는 상자를 반납해야 하니 얼른 짐을 풀고 상자를 현관에 꺼

내놓으라고 했다. 상자를 바닥에 쏟았다. 옷가지와 책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동생 방으로 넘어가 그 상자들도 바닥에 쏟았다. 동생은 새 방, 새 가구에 신이 나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버려진 물건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거실의 팬트리, 화장실 수납장, 주방 상부장, 하부장을 모조리 열어젖히고, 방마다 불박이장을 살폈다. 곰인형은 없었다. 이제 남은 곳은 한 곳이었다.

곰, 문, 곰, 문, 곰…….

이삿짐을 날랐을 낮 모르는 인부들을 상상했다. 짐을 들여놓기 위해 현관문을 통과했다면……. 나는 신발장을 바라봤다. 전신 거울이 붙은 신발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차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내 상상 속에서 곰인형을 들고 있는 누군가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눈코입을 상상할 수 없었다. 신발장 안을 보고 나면 나는 반드시 무언가를 인정해야만 할 것이었다. 눈코입이 없는 누군가가 했거나 하지 않았을 어떤 행위를. 곰인형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를.

엄마, 내 곰인형 신발장에 넣어줬어?

엄마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갔다. 다시 물었다.

엄마가 신발장에 넣어둔 거지?

엄마는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엄마는 잠시 땀을 들인 후에 농담처럼 말했다.

오래됐잖아. 새로 하나 사.

엄마의 눈코입이 서서히 흐려졌다. 나는 고개를 바닥으로 떨쳤다. 그리고도 참을 수 없어서 빠르게 거실로 나왔다. 엄마가 거실로 따라 나왔다. 빈 상자를 든 동생이 방에서 나왔다. 베란다를 정리하던 아빠는 창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내 곰인형, 본 사람 없어?

거실에 상자가 하나둘 늘어난다. 얼굴들이 거실을 가로지른다. 소파를 들어내자 벽지가 소파의 모양만큼 희다. 옷장을 버리고 돌아온 얼굴들이 내 방으로 간다. 장갑을 낀 손이 책상 위 곰인형을 움켜쥔다. 곰인형은 옷가지가 담긴 상자에 던져진다. 얼굴들이 책상을 맞잡고 현관문을 통과한다.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바스락거리며 옷상자로 다가간다. 공중에 봉 뜬 곰인형이 쓰레기봉투 속으로 떨어진다. 눈코입이 없는 엄마가 쓰레기봉투를 들고 거실로 간다. 아빠가 그 봉투를 건네받는다. 아무도 말이 없다. 아무도. 없다.

나는 새집에서 뛰쳐나왔다. 눈코입이 사라진 얼굴들이 금세 따라올 것 같았다. 지하철역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있는 힘껏 달렸다. 예전 집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이 좀 넘게 걸렸다. 내가 쓰던 책상, 의자, 침대가 쓰레기장의 한쪽에 나란히 버려져 있었다. 주변에 놓인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안에는 눈에 익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쓰레기봉투를 마구 헤집었다. 십여 개에 달하는 쓰레기봉투 중 곰인형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모여들었다. 여기서 뭘 하느냐고 내게 물으면서도 선불리 다가오지는 않았다. 뉴스에서나 보던 성추행, 성희롱 따위의 단어가 자신들을 덮쳤을 때의 억울함 같은 걸 계산하는 듯했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는 소리가 들렸고, 저걸 다 누가 치우느냐고 불평하는 소리도 들렸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아파트 주민이 나를 구경했다. 건주의 품에 안긴 조그만 치와와가 왈왈 짖었다. 마음이 조금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가족이 여기로 달려오기 전에 곰인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정신없이 쓰레기봉투를 뒤졌다. 마침내 다섯 개째 쓰레기봉투를 열었을 때 초록색 발바닥이 보였다. 손을 넣어 그것을 잡아 쪽 끄집어냈다. 곰솔곰솔 양털을 한 곰인형이 딸려 나왔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곰인형을 꼭

끌어안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터질 듯이 뛰던 심장이 차츰 안정되었다. 그제야 나를 향한 시선들이 느껴졌다. 털에 파묻힌 콩알 같은 새까만 눈부터 시퍼런 눈썹 문신을 한 근심 어린 눈까지. 눈코입들이 나와 곰인형을 향해 있었다. 막무가내로 울음이 터졌다. 목에서 엉엉 소리도 터져 나왔다.

한참 후에 아빠가 운전한 차를 타고 가족이 왔다. 부모님이 경비 아저씨와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연신 사과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 한참이나 이야기를 나눴다. 차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들 중 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눈코입이 있는 쪽도 없는 쪽도 상대의 얼굴이 다름을 알지 못했다. 나는 가족의 얼굴에서 눈코입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다. 그러나 그 얼굴들은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뒷좌석에 몸을 파묻고 곰인형을 끌어안았다.

그날 나는 가족의 얼굴을 잃었다. 밥을 먹을 때는 밥과 반찬만 바라봤다. 집에 있는 날에는 대부분 방 안에만 있었다. 화장실은 밤늦게 아니면 아주 새벽에만 이용했다. 몇 번인가 아빠와 엄마가 나를 거실로 불러내서는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냐며 물었다. 나는 거실 구석의 모서리만 바라봤다. 곰인형에 대해서 물어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면 자연히 화가 났고 잠시 뒤에는 울고 싶어졌다. 왜 버렸냐고 물었을 때 낄낄웃으니까, 라는 대답을 들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곰인형과 함께 내 마음도 낄낄웃기 때문에.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에 낄낄 웃는 것들 모두 버리라고 할까 봐 차마 물을 수 없었다.

어째서 나는 이 모든 장면들을 보고 있는가. 누군지도 모를 사람에게 목이 잡혀 끌려가면서. 어째서. 수백, 수천 장의 내 삶 속에서 가족이 보인다. 여전히 얼굴이 없다. 그렇거나 무섭고 싫었던 ‘국어’의 얼굴도 그대로고, 그동안 마주쳤던 간판과 메뉴판 글자들도 그대로인데, 아빠와 엄마, 동생의 얼굴만 텅 비어 있다. 누군가가 포토샵으로 눈코입을 매끄럽게 덮어 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새벽 2시에 가까운 시각,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지금의 나를 본다면 내 가족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걸음마다 뭔가가 자꾸 밟힌다. 포대 껍질 같은 것. 나무 조각 같은 것. 한밤중의 공사판에는 사람이 없다. 네모난 상자들. 삐죽삐죽 서 있는 원형 기둥들. 그렇지 않다면 빈터. 달빛만 쏟아지는 반들반들한 바닥들이 전부다. 범인이 내뿜은 숨이 뒷목에 와서 닿는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다. 패딩 점퍼 안으로 한기가 밀려든다. 오늘따라 더 붉은 그대 입술, 노란 가로등 아래 눈이 부서 파위의 노랫말이 반복된다. 나는 이 가사를 외우지 못할 것 같다. 앞서 지나간 노랫말과 뒤에 나올 가사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럴 줄 알았다면 콘서트라도 한 번 가 볼걸. 앨범강이라도 해서 팬 사인회도 가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공항 배웅도 나가 보고, 해외 공연에도 따라가 보고. 한 번쯤은 극성을 부려볼걸. 이럴 줄 알았으면.

범인은 이곳의 지형을 잘 아는 것 같다. 몇 개의 빈 터와 몇 개의 골조 건물을 지난다. 잠시 후에 자신이 벌일 일을 상상하는지 숨결이 한층 뜨겁고 가빠졌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알 수 없다. 다만 견뎌야 한다는 것밖에는. ‘국어’ 때 그랬던 것처럼 뭐라도 붙들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글자를 찾아 눈으로 어둠을 더듬는다. 글자가 필요하다. 단 두 개라도. 거꾸로 읽고 뒤집어 읽을 글자가.

건, 물, 앞…… 드디어 글자가 보인다. **건물 앞 화물 적재 금지 노상 방뇨 금지 쓰레기 투척 금지 주·정차 금지 무단 출입 금지 양생 중 접근 금지.** 크고 굵은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다. 금지, 금지, 금지. 낮 모르는 이의 오줌 흔적을 발견했을 사람, 누가 버렸는지 모를 쓰레기를 치웠을 사람, 길가에 적재된 화물과 주차된 차량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글자에 스며 있다. 화가 난 글자들이 금지, 금지, 금지를 외친다. 어디에도 범죄 금지,



납치 금지, 살인 금지 따위의 팻말은 없다.

나도 금지 팻말을 붙였더라면 어땠을까. 곰인형 방치 금지, 곰인형 쓰레기 취급 금지, 곰인형 유기 금지. 그랬어도 나는 지금쯤 가족의 얼굴을 잃어버렸을까. 곰인형 이름을 금지라고 지었더라면. 내 이름이라도 금지로 바꾸었더라면. 진작에.

3층까지 지어진 제법 모양새를 갖춘 빈 건물에 다다랐다.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 범인과 나 단둘이다. 금지 팻말이 없는 어떤 행위가 잠시 후에 일어날 것이다. 나는 비로소 특정 팻말들이 없는 이유를 이해한다. 사라져 버린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어쩌면 그게 내가 될지도 모른다. 범인이 나를 팽개치듯이 바닥으로 밀친다. 힘에 떠밀리며 한쪽 운동화가 벗겨진다. 나는 힘없이 넘어진다. 왼쪽 어깨가 가장 먼저 바닥에 닿는다. 악 하고 짧게 소리를 지른다. 왼쪽 이어폰이 귀에서 빠진다. 속이 텅 빈 쇠 파이프가 바닥에 던져진 듯 속 빈 소리를 낸다. 쇠 파이프가 데구르르 구르다가 멈춘다. 절반의 고요와 절반의 노래가 귀를 채운다. 금지, 금지, 금지.

무섭도록 새까만 눈동자가 눈앞에서 번뜩인다. 이건 자연사가 아니다. 내가 꿈꾸던 자연사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다. 범인이 내 위로 올라타 내려본다.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공사판에 끌려오는 일 따위는 상상해 본 적도 없다. 범인이 양손으로 내 양어깨를 누른다. 가족의 얼굴이 뭉개졌는데, 콘서트도 한 번 못 가 보고, 잃어버린 무선 이어폰을 새로 사려면 알바비 20만 원이 들 텐데. 내 목을 죄고 있던 손은 내 양쪽 어깨로 옮겨갔다. 금지라는 글자가 마지막 글자라니. 내 목을 조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하면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올 것만 같다. 범인이 미는 대로 어째서 순순히 끌려온 걸까. 어째서 나는. 어째서. 금지, 금지, 금지. 소리를 내고 싶다.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단 한 번만. 뭐라도. 그런데 언제. 뭐를. 도대체 언제. 금지, 금지, 금, 지, 금, 지, 금, 지금, 지금!

*고양이가 양칼진 소리를 낸다. 개가 허공을 보며 큰 소리로 짖는다. 야, 잠 좀 자자, 하며 남자가 고함을 지른다. 여자 두 명이 다가온다. 경찰차의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린다.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쏟아진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건 아니었다. 고양이는 자동차 밑에서 기어 나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날아든 비명에 질겁하며 도망갔다. 야근하고 온 건주는 산책할 때만 똥을 싸는 진돗개를 데리고 새벽 산책을 나왔고, 똥을 싸다가 깜짝 놀라 중간에 똥이 꿇긴 개는 당황해서 오랫동안 짖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남자는 저 먼 곳으로 잠을 내쫓는 소리에 화가 나서는 창문을 열고 외쳤다. 고양이 밥을 주고 옆 골목으로 옮겨갔던 캣맘들은 양손에 각목을 주워 들고 돌아왔다. 옆 동네를 순찰하던 경찰차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즉시 사이렌을 켰다. 물류센터의 새벽 근무를 위해 이제 막 출근하던 남자는 길에서 불쑥 튀어나온 범인 때문에 너무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

나를 둘러싼 여зал들과 남자들과 경찰과 진돗개를 본다.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시다. 한쪽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에서 내 가수의 노래가 흐른다. 바닥이 차갑다. 한쪽 운동화가 벗겨져서 발이 시렵다. 웃음이 나온다. 눈물도 나온다. 웃고 있는데 영영 소리도 나온다. 울든 웃든 하나만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여зал들이 내 곁에 와 쪼그려 앉아 등을 쓰다듬는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운동화를 발에 끼워준다. 나는 경찰의 부축을 받아 경찰차에 올라탄다. 창밖에서 진돗개가 근엄한 얼굴로 쫓는다.